

2010 정기총회를 마치고

The closing address of 2010 regular general meeting

특히 우리 협회를 일원화된 단체로 발전시켜 미래를 밝혀 나가기 위해 지난 3년간 논의해온 건축사단체 통합을 마무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총회의 결과를 보면 단체통합에 대하여 대의원님들은 대의는 인정하나 변화를 수용하기가 아직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회원님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고 파스한 봄기운이 넘치는 완연한 3월입니다. 작년 이맘 때 취임하여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원님들에게 드린 약속, 건축사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 생존대책을 강구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온 1년이었습니다. 바로 취임 때 말씀드린 살기 위한 전략, 인정받기 위한 전략, 꿈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에 우리 건축사들의 권익에 관련된 각종 법, 제도의 개선, 공제사업추진, 친환경건축설계 교육기관의 운영,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준비, 건축사 전문도서 발간, 건축산업대전 활성화, 건축문화 홍보행사 개최, 건축사단체 통합 추진 등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특히 우리 협회를 일원화된 단체로 발전시켜 미래를 밝혀 나가기 위해 지난 3년간 논의해온 건축사단체 통합을 마무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기회가 시대적으로 풀어야 할 숙명적 시기이기도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건축계에 찾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합정관개정건은 지난 11월의 임시총회와 같이 이번 제44회 정기총회에서도 찬성 189표, 반대 118표, 무효 2표로 2/3이상의 대의원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임시총회 개최 후 회원의 이해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이사 4인과 시도회장 5인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를 새로 발족하였고 전 회원 설문조사, 전국 시도건축사회 의견취합, 좌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며 무엇보다 반대회원의 쟁점사항이나 전 회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몇 달 동안 밀도있게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총회의 결과를 보면 단체통합에 대하여 대의원님들은 대의는 인정하나 변화를 수용하기가 아직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협회의 전열을 가다듬어 건축사의 권익을 위하여 생존대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진로를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 남은 임기동안에는 건축사법 전면개정을 비롯하여 발주제도 및 건축물 신고제도의 개선, 공제사업 추진, 건축물관리법 제정추진 등,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우리들과 미래의 건축사들을 위하여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힘을 모아 전진한다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머지않아 건축사가 문화시대를 이끄는 창의적 리더로서 우리 사회에 꽃피우게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는 국운상승의 해라고 합니다. 동계올림픽 성과와 함께 건축사도 상승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회원님들 사업의 번창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집 / Choi, Young-jip, KIRA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축문화의 해(1999) 기획위원, 사업위원장
-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회장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특별시 심의위원
- 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탐 대표
국기보훈처 심의위원
국토해양부 중앙심의위원